

성보박물관 국가지원 절실

조계종 보고서, 문제점·활성화 방안 지적

성보박물관이 유물 수집·일반인 교육 등 공공적 성격에 비해 운영은 일방적으로 사찰 지역에 맡겨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와 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성보박물관 현황 조사 보고서>(이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16개 성보박물관 가운데 전시설 외에 일반인 교육이 가능한 자료실이나 강당을 모두 갖춘 곳은 6곳에 불과하다.

또 예산부족으로 박물관 4곳에서는 학예연구원을 임용하지 않고 있고, 학예연구원이 있는 곳도 대부분 1~2명에 불과해 전문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박물관 건립 시 수장·방화·화재·전시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점검이 없고, 건립 후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충분한 검토 없이 건립에만 중점을 뒀, 박물관의 역할이 유물창고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이다.

유물을 보유하는 양은 많으나 보관시설미비로 오히려 유물이 훼손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항온·항습·화재예방 시설 가운데 하나 이상의 시설을 갖추지 않은 박물관도 4곳에 이른다.

보고서는 성보박물관의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성보박물관의 공공성을 높이고 국가가 운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교 문화재는 특정 종교문화유산의 의미 뿐 아니라 민족문화유산이므로 성보박물관 운영은 국가차원의 운영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문화관광부·문화재청·국립박물관 등과 협의해 성보박물관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할 것도



◇통도사성보박물관에서 11월 7일부터 2004년 1월 11일까지 열리는 '고려불화 재현전' 현장.

전국 16곳 운영중, 14곳은 개관 앞뒤

자력 운영 한계·보관시설 미비 등 문제

사찰별 특성화·전문인력양성 서둘 때

주문했다. 설립 초기부터 운영 계획의 타당성을 세우고, '한국 불교역사 문화기념관'이 건립되면 불교중앙박물관

관으로서 지방성보박물관에 대한 활성화와 지도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성보박물관의 전문성 강화부담도 제기됐다. 각 사찰별로 성보박물관의 특색을 살리고, 학예연구원 채용과 재교육, 문화재 보수 처리자 양성, 박물관장·학예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 교육프로그램 마련 등으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

한편 성보박물관은 국·공립 박물관에 보관하지 못하는 성보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 1990년 3월 법주사 성보박물관이 개관한 것을 시작으로 1995년 순천 송광사 16조사진영도(보물 제1043호) 단산사건 이후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대부분 교구본사에서 운영 중인 성보박물관은 현재 운영 중인 16개소와 개관을 준비하고 있는 14개소 등 총 30개소이다. 개관을 준비 중인 14개소 가운데 건물을 완공했으나 개관이 지연되는 곳은 금산사·선운사 등 5곳이며 설계 혹은 공사중인 박물관은 불국사 등 9개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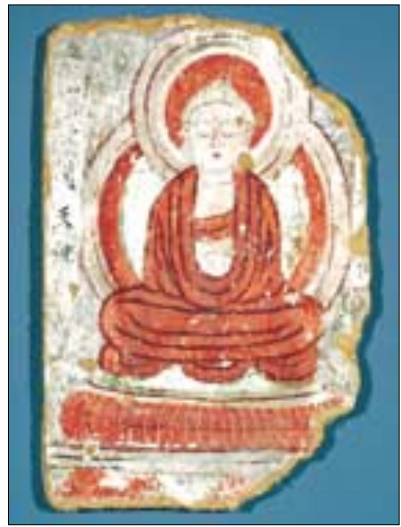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대각사상연구위원회(위원장 박광)는 11월 28일 <대각사상> 6집을 발간했다. 이 책에는 4월 25일 '백용성 스님과 한국불교의 포교활동' 세미나에서 발표된 '각황사의 설립과 운영'(김광식 교수) 등 5편과 기고논문 5편 등 10편의 논문이 실렸다. 기고논문은 이자랑(동국대) 교수의 '오전 주장자에 대한 불교승단의

'대각사상' 6집 발간

세미나 발표논문 등 10편 실어

입장', 이재수(동국대) 전자를 전(연구소) 연구원의 '대승불교와 채식에 관한 연구', 원현진(동국대) 씨의 '법광경' 불유계의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 정수(동국대) 스님의 '용성선사의 수심정도에 관한 소고', 최동순(동국대) 교수의 '현태사상에 있어서 상주(相州)와 호구(胡口)의 원교적 접근' 등 5편이다.



◇천불도의 보존처리 이전(위)과 이후 모습.

서역벽화 6점 보존 처리

중앙박물관, 16일부터 특별전

87년을 박물관에서 잠자고 있던 중앙아시아 벽화 6점이 보존처리를 마치고 일반에 공개된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강우)이 12월 16일부터 내년 2월 1일까지 개최하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서역미술(西域美術)' 특별전을 통해서다.

이번 전시회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최근 보존처리를 마치고 일반에 처음 공개되는 오타니 탑협대의 서역벽화 6점. 이들 벽화는 일본 교토(京都) 정토진종(淨土眞宗) 본원사(本願寺派)의 본산인 니시후간지(西本願寺)의 오타니 고즈이(大谷光瑞)가 1902년부터 1914년까지 13년에 걸쳐 중국 베제크리 석굴 등지에서 떼온 천불도(千佛圖) 4점과 석굴 내부의 천장과 벽면 사이를 장식하는 띠문양 2점 등이다.

1916년 조선총독부박물관에 기증돼 있던 60여점의 '오타니 컬렉션'은 현재 한국, 중국, 일본에 흩어져 있는데 이 가운데 서역벽화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과 독일, 러시아 외에 인도에서 극히 일부를 소장하고 있는 귀중한 유물로 평가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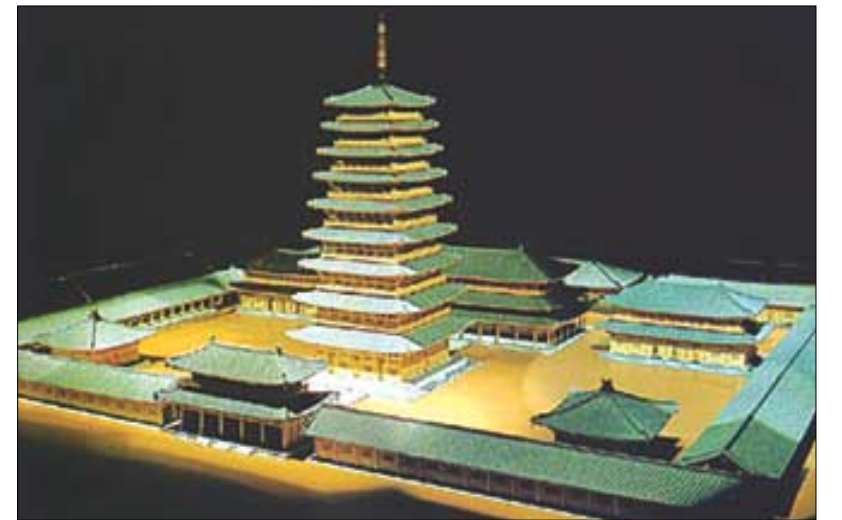


정병모 교수가 쓰는 불교 미술의 美

신라의 자존심, 황룡사탑

전 임금(眞平王) 시대에 당나라로부터 은 모란도(牧丹花圖)와 꽃씨를 얻어 덕만(善德女)에게 보였더니 덕만이 말하기를 "이 꽃이 비록 곱기는 하지만 반드시 향기가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웃으면서 "네가 어떻게 그것을 아느냐?"하고 물었다. 그녀는 대답하기를 "꽃을 그렸는데 나비가 없으므로 이것을 알았습니다. 무릇 여자로서 국색이 있으면 새나기가 따르는 법이요 꽃에 향기가 있으면 벌과 나비가 따르는 까닭입니다. 이 꽃이 무척 고운데도 그림 위에 벌과 나비가 없으므로 이는 반드시 향기가 없는 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 씨를 심었더니 과연 그녀의 말한 바와 같았다. 그녀가

장은 급기야 귀국하였다. 자장이 중국에서 유학할 당시 신령스러운 사람이 나타나 "지금 당신의 나라는 여왕을 모시고 있소. 여자가 임금이라 딱은 있으나 위엄이 없으므로 이웃 나라들이 넘겨보는 것이요. 그대는 하루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 나라의 힘이 되도록 하시오." 또한 "지금 본국으로 돌아가면 황룡사 안에 9층탑을 세우도록 하시오. 그리하면 나라가 깊이 평안하리라"라고 계시하였다. 이에 자장은 바로 귀국하여 왕에게 이의 외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탑을 건립해야 된다고 건의하였다. 따라서 선택받은 거대한 탑을 세워 자신이 결코 나약한 통치자가 아님을 만방에 선포하였는데, 그것이



◇황룡사9층목탑 복원 모형도.

각 층마다 신라 주변국 진압 기원 담아 女황제 알보는 당나라 등에 권위 보여

알을 내다보는 식견이 어려웠다. <삼국사기> 권 제5 신라본기 제5 섹션

당태종이 선택왕에 오를 덕만공주를 향기 없는 모란꽃에 비유하였다. 모란은 여왕을 상징한다. 왕 위에 오르기 전부터 여왕의 통치에 대하여 알잡아 보는 시각이 중국 당나라에 도움을 요청하자 당태종은 세 가지 방책을 제의하였다. 그 가운데 세 번째로 "너희 나라가 부인으로 임금을 삼았으므로 이웃 나라가 경멸하여 주인을 잃고 도저를 불러 들어 편안한 세월이 없었으니 내가 나의 친척 한 명을 보내어 너희 나라 임금을 삼겠다"라는 모욕적인 제안을 하였다. 사태가 이쯤에 이르자 중국에 유학한 자

바로 황룡사9층목탑인 것이다. 황룡사9층목탑의 1층은 일본, 2층은 중국, 3층은 오월, 4층은 탁라, 5층은 음유, 6층은 말갈, 7층은 단국, 8층은 여제, 9층은 예맥을 진압하려는 기원을 담았다고 했지만, 선택왕이 가장 의식한 대상은 당태종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황룡사9층목탑은 당나라를 비롯하여 자신을 알보는 이웃 나라를 향해 선포한 선택여왕의 자존심이자 신라의 권위인 것이다. 이 탑은 높이가 80m에 달하는 목조건물이나 신라에서 가장 큰 탑이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목조건물인 셈이다. 그런데 황룡사9층목탑이 어렵게도 고려시대 풍고란 때 불타 없어졌으니, 덩그러니 남은 주춧돌 위에서 선택왕이 여성 황제의 권위를 세워가는 험겨운 역사를 떠올려 본다.

■경매대 문화재학부

파동명상수련을 통하면 영통(靈通)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도교사 박봉순
◇ 2001년 10월 SBS 호기심천국
◇ 2002년 4월 KBS VJ특공대
◇ 2003년 3월 i-TV 위험한초대 출연

「파동명상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영식(자연영식)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수련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영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수련내용

- ◆ 파동명상제령: 제주(祭主) 또는 신도가 몸속의 영가와 대화할 수 있으며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
- ◆ 원격명상제령: 제3자가 파동명상상태에서 원하는 사람의 몸속에 있는 영가를 불러내어 대화하거나 제령천도 할 수 있다.
- ◆ 영통靈通수련: 특별한 파동명상 기법을 통하여 영통을 열 수 있게 하는 비법을 전수한다. (영통수련은 상담 후 결정)
- ◆ 수련대상: 스님, 법사, 기공사, 의사, 약사, 기타 상담사
- ◆ 수련교재: 기초교재, 비디오 테이프, CD 교재
- ◆ 수련일시: 12월 둘째주, 넷째주
- ◆ 수련과정 (1대 1 개인지도도 가능, 전화문의 바람)

- ① 파동명상 전문반: 파동명상 지도사 수련과정으로 6일간 수련으로 지도사 자격증 수여. (수련비 200만원)
- ② 영통수련반: 상담 후 결정

사람의 몸을 숙주로 삼고 있는 병의령들은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다. 몸 속에 병의령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훌륭한 스승 밑에서 (기질의 수련방법)기질과 관계된 수련을 한다해도 병의령이 몸 속에 있는 사람들은 기수련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다.

○올해 43세의 강총식(기명)씨는 10년 전 안정된 교직 생활을 그만두고, 강원도 맑은 산 속에 들어가 기와 관계된 수련을 하던 중 평소 파동명상에 관한 지대한 관심이 있어 본 파동명상 연구소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수련을 시작한 둘째 날 아침에 파동명상을 통한 심층 이완법을 시도하던 중,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갑자기 '제발! 파동명상수련을 하지 마세요!'라는 여인의 간절한 음성이 수련의 시간 간격을 두고 네번이나 들렸다. 그러나 강씨는 그 말을 무시하고 계속 파동명상수련을 하였는데 수련 시작 후 20분이 지났을 무렵 느닷없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러운 여인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강씨가 '누구냐?'고 여인의 정체를

물자, 여인은 깊은 슬픔을 토하며 자신은 200년 전 전생에서 강선생님과 너무나 사랑하던 사이였고, 현생에는 몸을 받지 못해, 영혼의 모습으로 50년 동안 강선생님과 함께 있기 위해 태어날 때 함께 따라와 있었는데, 이제 그 인연의 시간이 다 되어 떠나야 함이 슬프다고 말했다. 그 여인이 마지막 작별을 고하고 가는 순간, 강선생님은 몸속에서 둥글고 탁한 어두운 기운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면서, 온몸이 훈산간 밝아지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환희심과 희열감을 느꼈다고 한다. 그 이후 강선생님은 날이 갈수록 기분이 향상되고 발전되어 집안을 느끼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 왔다.